

이슈페이퍼 2017-20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

이 윤 진 | 연구위원

1. 아버지 양육참여의 필요성
2. 아버지 양육지원 제도
3.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역량 실태
4.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방안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

이 윤 진 | 연구위원

요 약

- 정부는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성육아휴직 사용을 독려, 배우자출산휴일 확대(유급휴가 확대), 아빠의 날 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옴. 남성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기업문화, 초과근무의 일상화가 우리사회의 현주소임.
-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버지 교육, 아빠 자조모임 활성화 등 아버지 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임.
- 자녀연령(생후 12개월 이상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아버지, 초과근무가 적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보다 양육역량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이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아버지, 자녀양육에 관심이 높은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임.
- 영유아 아버지의 경우, 양육역량 4개 영역 중에서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 점수가 낮게 나옴.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측면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육아시설 인프라 부족으로도 해석 가능함.
- 아버지의 양육역량 증진을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방안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장려, 남성 육아휴직제도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확대, 칼 퇴근법 제정 등을 제안함. 아버지 대상 교육 지원으로는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의 자녀에게 국공립 기관 입소 시 가산점 부여,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아버지에게 연차 지원 또는 유급휴가 지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의 예산 지원, 지역사회에 ‘아빠카페’ 개설 등을 제시함.

* 본고는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이 수행한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1

아버지 양육참여의 필요성

-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Parke는 이를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라 명명함.
 -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임(Parke, 2000).
 - 초저출산 시대에 한명 한명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아버지 육아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이 중요한 이유임.
- 그러나 실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매우 짧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결과임.
 - 유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1.3시간, 주말 4.1시간임. 반면, 취업모의 양육참여시간은 평일 3.5시간, 주말 7.5시간임(김은설, 2012).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참여시간이 평일은 약 3배, 주말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정책적으로 아버지 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저조함. 본고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양육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 아버지의 양육역량 증진방안을 모색함.
 - '양육역량'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기능뿐 아니라 양육자로 해낼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잠재력까지 포함된 용어임.
 - 본고에서 활용한 아버지 양육역량은 인식, 실행, 성장의 3개 역량의 각 역량별로 4개 영역(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으로 구성함.¹⁾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기술함.

2 아버지 양육지원 제도

가. 법제도

-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19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음(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4).
 -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함(법 제18조의2).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을 적용 받아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함.
 -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친화기업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됨. 남성 육아참여 관련 지표를 보면, 중소기업은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지표는 5점 가점이지만, 대기업은 필수항목으로 포함됨.

나. 정책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총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양성평등관점에서 남성(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지원해 옴.
 - 제1차(2006~2010)에서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무급 3일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제2차(2011~2015))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제로 지원을 강화함.
 - 제3차(2016~2020)는 브릿지(BRIDGE) 플랜이라 해서, 여기서 ‘D’는 ‘Daddy’의 이니셜로서, 남성의 가사일과 양육참여를 강조함. 현재 약 5% 수준인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발표함.

2) 건강가정 기본계획

- 제1, 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남성의 참여도는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음(대한민국정부, 2016:8).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 등의 남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조함(대한민국정부, 2016:10).

3) “100인의 아빠단”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11년 “100인의 아빠단”을 출범함.
 - 100인의 아빠단은 2015년까지 약 750여명의 아빠들이 참여하였는데, 선정된 멘토 및 초보아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빠들만의 육아노하우를 공유하는 아빠 육아모임임(보건복지부, 2015:11-13)

4) “워킹대디 사업”

-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와 아버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발표함.

- 육아참여, 자녀와의 교감 방법 등 워킹대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아버지 교육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 아버지 모임 지원과 학부모회 참여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 문화 확산 등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의 제시함(여성가족부, 2015:45-46).
- 2016년 6월 기준으로 6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82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함(여성가족부, 2016:9).

다.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조아 아빠교실’, ‘아이조아 놀이교실’를 운영함.
 - “아이조아 아빠교실”은 서울시청 인근(행정구역 중구)의 영유아 자녀를 둔 남성 직장인들 50명 내외 대상으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카드 회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임. 직장인들 점심 시간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5,000원임(점심도시락과 강의 자료 제공).
 - “아이조아 놀이교실”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빠참여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함.

2)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 교육 및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변경함 (표 1 참조).
- 2016년도에 강조된 사업이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강화, 아버지 자조모임 활성화, 요일구분 없이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임.

〈표 1〉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달라진 내용 일부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변경사유
사업 방향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예비 직장맘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교육 내용 추가 - 아버지 교육 중 일부를 직장맘 남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활성화 - 관공서·공공기관· 학교·기업·군부대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활성화 - 아버지 교육 중 일부를 직장맘 남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 육아정보 공유를 위해 아빠자조모임 운영·지원	찾아가는 부모(아버지)교육을 강화하고 아빠 자조모임 활성화 명시
가족 돌봄 사업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 토요일/공휴일 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 - 1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대를 위해 요일구분 없이 사업 확대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8-9.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렌디’ 사업

- 프렌디는 친구(friend)와 아빠(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빠, 우리 아이가 원하는 아빠의 의미를 갖음(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셔, 2016).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아버지 대상 집합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신나는 아빠놀이티), 아빠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개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실시하고 있음.

3) 유아교육진흥원

-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비중이 적으나, 일부 진흥원에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역량 실태

-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전국의 아버지 1,500명 대상(영아 500명, 유아 500명, 초등 1, 2학년 500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을 객관화하기 위해 아버지 표집과 동일한 표집방법으로 어머니 1,500명(영아 500명, 유아 500명, 초등 1, 2학년 500명)을 따로 추출하여 배우자(남편)의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 평가를 실시함. 즉, 본 조사에서 표집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가 아니고 별도로 표집함.
- 표집틀은 조사업체의 패널을 이용함.
- 양육역량은 2013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self-checklist)를 아버지 양육에 맞춰 변용해서 활용함.
- 2016년 체크리스트는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 문항수를 축소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함.

〈표 2〉 2013년과 2016년 체크리스트 비교표

구분	2013년 버전		2016년 버전	
영역	7개 영역	I. 영유아 발달 II. 건강과 안전 III. 가족관계 IV. 물리적·물질적 환경 V. 놀이 VI. 생활지도 VII. 지역사회 연계	4개 영역	발달과 놀이(I+V)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II+VI) 가족관계(III)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IV+VII)
문항수	67문항		51문항	
종류	영아용, 유아용		영아용, 유아용, 초등저학년용	
척도	5점 척도			
비고	2016년 영아용은 생후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제한함.			

자료: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77.

- 실행역량이 33개 문항수로 가장 많고, 인식역량 11개, 성장역량 7개순임. 인식역량은 문항 내용을 알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고 실행역량은 실천을 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며 성장역량은 자기반성적 내용의 문항임.

〈표 3〉 2016년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 영역과 문항수 구성

역량\영역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 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계
인식역량	2	3	2	4(3)	11
실행역량	9	9	8	7(6)	33
성장역량	2	3	1	1	7
계	13	15(16)	11	12(11)	51

주: 건강과 안전 및 생활지도의 괄호안은 유아 문항수이며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의 인식역량 괄호안은 영아 문항수, 실행역량의 괄호 안은 유아문항수임.

자료: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77.

가.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1) 아버지 근무 실태

-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주 5일제 근무를 함(76~77%).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약 20%이며 5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소수로 나타남. 주당 평균 초과근무횟수 3회 이상이 가장 많음.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당 초과근무 횟수가 많아짐.

〈표 4〉 본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 근무 실태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초등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주당 근무일 수						
5일 미만	4.5	1.7	2.2	3.5	3.5	2.3
5일	77.0	77.4	77.0	75.9	75.9	69.1
6일 이상	18.5	20.9	20.9	20.6	20.6	28.6
주당 평균 초과근무 횟수						
없음	19.4	12.2	15.8	13.8	13.8	15.0
1회~2회	39.4	37.7	40.0	39.8	39.8	36.1
3회 이상	41.2	50.1	44.1	46.4	46.4	49.0

주: 본인은 아버지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이며, 남편은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응답임.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6.

2)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및 아버지 교육 현황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본인)는 약 20%로 내외로²⁾ 사용하지 않은 아버지가 대다수임.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기간은 6개월 미만 사용이 가장 많았음.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사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
- 아버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험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1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5〉 본 조사 참여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및 아버지교육 현황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초등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육아휴직 사용여부						
사용함	18.2	15.5	18.6	13.1	23.6	16.9
사용하지 않음	81.8	84.5	81.4	86.9	76.4	83.1
육아휴직 사용기간						
6개월 미만	57.7	50.2	59.6	54.0	60.0	53.2
6~12개월	29.9	29.9	18.7	36.8	27.8	36.1
13개월 이상	12.4	19.9	4.7	9.2	12.2	10.7
아버지 교육 이수 여부						
있음	10.1	9.2	11.7	9.1	14.1	13.0
없음	89.9	83.5	88.3	86.4	85.9	77.3
잘 모름	-	7.3	-	4.5	-	9.7
아버지 교육 이수 횟수						
1회	53.1	42.1	45.5	52.5	48.7	49.0
2회	23.5	28.1	29.1	23.9	32.2	27.9
3회	15.5	10.6	17.1	8.7	12.4	7.1
4회 이상	7.9	19.2	8.3	14.5	6.7	15.9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87-88.

2)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10%가 채 안되는 데, 본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는 조사업체의 패널에서 표집한 결과로 해석됨.

3)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

- 아버지 본인 응답 기준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주중은 2~4시간이 주말은 10시간 이상이 가장 많음. 그러나 배우자의 평가는 이와는 다르게 나옴. 주중은 2시간 미만, 주말은 2~4시간, 4~6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 자녀양육에 대해 아버지 본인과 배우자(남편)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 본 조사 참여 아버지 자녀양육시간

단위: %(명)

구분	본인			남편		
	영아	유아	초등	영아	유아	초등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주중 양육시간						
2시간 미만	23.0(115)	30.1(151)	30.5(152)	38.2(191)	48.3(241)	46.0(230)
2~4시간 미만	45.7(229)	41.3(207)	36.9(185)	37.4(187)	35.3(176)	31.6(158)
4~6시간 미만	17.8(89)	16.2(81)	16.1(80)	13.9(69)	7.8(39)	11.5(57)
6시간 이상	13.4(67)	12.3(62)	16.5(82)	10.5(53)	8.6(43)	11.0(55)
주말 양육시간						
2시간 미만	4.4(22)	4.2(21)	8.5(42)	11.8(59)	17.1(85)	22.8(114)
2~4시간 미만	16.0(80)	18.5(92)	26.8(134)	23.0(115)	29.6(148)	31.6(158)
4~6시간 미만	19.4(97)	23.0(115)	26.3(132)	24.2(121)	22.6(113)	24.0(120)
6~8시간 미만	12.5(62)	14.7(73)	11.4(57)	13.0(65)	10.4(52)	6.2(31)
8~10시간 미만	17.0(85)	11.2(56)	8.7(43)	9.7(49)	8.5(42)	4.9(25)
10시간 이상	30.6(153)	28.4(142)	18.3(91)	18.3(91)	11.9(59)	10.4(52)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88-89.

나.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1)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량

-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 주당초과근무 횟수가 적은 아버지 집단의 양육역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아버지,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함.
- 4개 영역에서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가장 낮음.

〈표 7〉 영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5(0.6)	3.5(0.6)	3.5(0.6)	3.1(0.7)	3.4(0.5)
육아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6(0.6)	3.7(0.6)	3.7(0.6)	3.5(0.7)	3.6(0.5)
	사용안함	3.4(0.6)	3.5(0.6)	3.4(0.6)	3.1(0.7)	3.4(0.5)
	<i>t</i>	3.81***	4.48***	6.09***	7.87***	6.42***
아버지 교육이수	이수함	3.7(0.6)	3.8(0.6)	3.8(0.7)	3.6(0.7)	3.7(0.6)
	이수안함	3.4(0.6)	3.5(0.6)	3.5(0.6)	3.1(0.7)	3.4(0.5)
	잘모름	3.4(0.5)	3.4(0.6)	3.6(0.6)	3.1(0.6)	3.4(0.5)
	<i>F</i>	4.720***	5.174***	4.746***	6.688***	6.138***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4(0.6)	3.6(0.6)	3.6(0.5)	3.2(0.7)	3.5(0.5)
	1~2회	3.5(0.6)	3.6(0.5)	3.5(0.6)	3.2(0.7)	3.5(0.5)
	3회 이상	3.4(0.6)	3.4(0.6)	3.4(0.6)	3.0(0.7)	3.3(0.6)
	<i>F</i>	3.04*	8.90***	6.95**	9.65***	8.59***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101-102.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량

- 영아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 주당초과근무 횟수가 적은 아버지 집단의 양육역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 영역별로는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가 3.1점으로 가장 낮고,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가 3.5점으로 가장 높음. “가족관계”와 “발달과 놀이” 영역은 각각 3.4점으로 동일함.
 - 영아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영역 점수가 가장 낮음.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측면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육아시설 인프라 부족으로도 해석 가능함.

〈표 8〉 유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4(0.6)	3.5(0.6)	3.4(0.6)	3.1(0.7)	3.4(0.6)
육아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7(0.5)	3.7(0.6)	3.7(0.5)	3.5(0.6)	3.6(0.5)
	사용안함	3.4(0.6)	3.5(0.6)	3.4(0.6)	3.0(0.7)	3.3(0.6)
	<i>t</i>	5.07***	4.76***	5.97***	8.39***	6.85***
아버지 교육이수	이수함	3.7(0.6)	3.8(0.6)	3.7(0.6)	3.5(0.7)	3.7(0.5)
	이수안함	3.4(0.6)	3.5(0.6)	3.4(0.6)	3.0(0.7)	3.3(0.5)
	잘모름	3.7(0.4)	3.7(0.5)	3.7(0.5)	3.2(0.6)	3.6(0.4)
	<i>F</i>	5.81***	5.58***	4.74***	6.23***	6.29***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5(0.6)	3.6(0.6)	3.5(0.6)	3.2(0.7)	3.4(0.5)
	1~2회	3.5(0.6)	3.6(0.5)	3.5(0.6)	3.2(0.6)	3.5(0.5)
	3회 이상	3.3(0.6)	3.5(0.6)	3.3(0.6)	3.0(0.7)	3.3(0.6)
	<i>F</i>	12.45***	9.30***	15.82***	16.94***	17.02***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05.

*** $p < .001$

3)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량

- 영아 및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집단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 초과근무가 적은 아버지의 양육역량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 자녀연령과 상관없이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다는 것을 재차 확인함.
-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이 3.7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3개 영역은 3.6점으로 동일하게 나옴. 영아와 유아 아버지의 양육역량 점수가 낮게 나온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는 낮게 나오지는 않음.
 -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초등 저학년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지역사회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원 등을 같이 다녀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 9〉 초등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육아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6(0.6)	3.7(0.6)	3.6(0.6)	3.6(0.7)	3.7(0.6)
	사용안함	3.3(0.6)	3.5(0.6)	3.4(0.6)	3.1(0.7)	3.3(0.5)
	<i>t</i>	7.07***	4.59***	5.65***	9.20***	7.53***
아버지 교육이수	이수함	3.7(0.5)	3.8(0.5)	3.7(0.5)	3.7(0.6)	3.7(0.5)
	이수안함	3.3(0.6)	3.5(0.6)	3.4(0.6)	3.2(0.7)	3.3(0.6)
	잘모름	3.4(0.6)	3.6(0.6)	3.5(0.5)	3.3(0.7)	3.5(0.5)
	<i>F</i>	7.067***	5.651***	5.466***	8.10***	7.41***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4(0.6)	3.6(0.6)	3.4(0.6)	3.2(0.7)	3.4(0.6)
	1~2회	3.5(0.6)	3.6(0.6)	3.5(0.6)	3.4(0.7)	3.5(0.5)
	3회 이상	3.3(0.6)	3.5(0.6)	3.4(0.6)	3.2(0.7)	3.3(0.6)
	<i>F</i>	8.08***	6.20**	8.65***	9.201***	9.784***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자료: 이윤진 외(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08.

** $p < .01$, *** $p < .001$

4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방안

가.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 패널조사라는 특수성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들이 10% 대 후반으로 높게 나옴.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사용한 아버지는 적었고, 절반 이상이 6개월 미만이었음.
-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 사용과 양육역량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제도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제 혜택, 대출 요건 완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지표에서 가점으로 되어 있는 “남성육아휴직 이용”을 필수지표로 함.
-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에서 현행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점,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5점을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독일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할당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현행 최대 월 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못한 수준임.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급여 수준의 80% 이상까지 끌어올림.
- 새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휴일 10일로 확대하고, 출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2개로 인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더불어민주당, 2017:161).

■ ‘칼 퇴근법’ 제정

- 초과근무 횟수가 적은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았음. 우리 사회의 잦은 야근, 회식의 기업 문화를 법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새정부는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칼퇴근법’을 제정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발표함(더불어민주당, 2017:161).

나.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 지원

■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지원

- 혼인,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연계성있고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아버지 교육 가이드 라인(안)”을 제작하여 병원, 주민지원센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함.
-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버지(남성)의 자녀(유아)의 경우, 국공립 기관에 입학 시 가산점을 부여함.

■ 학부모회 등에 참여하는 아버지에게 연차 외 지원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 회의나 참관수업에 참석하는 아버지는 연차에서 삭감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로 지원함.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

- 남성 직원이 많은 직장(전체 직원수 70% 이상)에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강사 및 교육비 지원

□ 아빠 카페 개설

-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역량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옴.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또래 아버지들과 공동양육을 할 수 있는 “아빠 카페” 등의 육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아빠들의 자조모임도 지원, 확대해 나감.

참 고 문 헌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더불어민주당(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보건복지부(2015). 100인의 아빠단.

김은설(2012).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04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셔(2016).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우리아빠는 프렌디.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년 ‘아이조아 아빠교실’ 추진계획.

여성가족부(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2016).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6.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